

# 건축용 화학제품 “잇따른 경고음”

정부, 천식·아토피 원인규명 강화 ... 유해물질 경보시스템 구축

천식,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.

기획예산처는 환경성 질환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관련예산에 2005년보다 88% 늘어난 15억원을 반영하고 예방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.

이에 따라공단·도시·농어촌 지역 어린이 대상의 실태조사 지역이 2005년 6개에서 2006년 9개로 확대되고 조사대상 아동수도 1800명에서 2700명으로 늘어난다.

또 미래세대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인 산모와 영유아 1000명에 대해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 노출과 건강상태의 상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.

아울러 강, 하천, 바다의 어패류의 수은 등 중금속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후 하루 어패류 섭취량 한계를 설정해 권고하는 등 유해물질 섭취를 예방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.

유아용 물 티슈나 풍선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규명하고 관리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.

기획예산처는 “다양한 환경 유해요인의 위협과 질환 발생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·규명함으로써 환경보건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10/21>